공감

2022. 10.24–30
676 호
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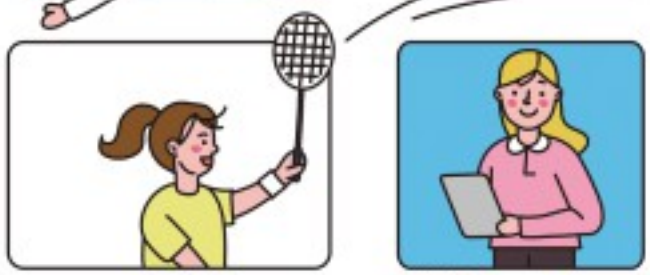
가을,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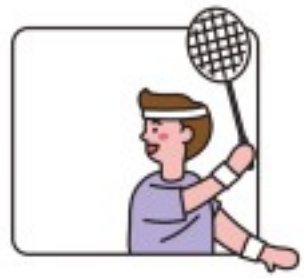
특집 청년아, 다시 뛰자!_24 '어서와 청와대는 처음이지?'… 외국인·외신도 "개방 좋아요"_10 "24개 규제혁신으로 1.5조 원+α 기업투자 기대"_42
"스포츠에 자유와 연대 정신 녹아들도록 최선"_06 공공디자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_38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39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헌책방과 네잎클로버



● **우희덕** 코미디 소설가
장편소설 〈러블로그〉로 제14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벗어나 본 적 없는 도시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제주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계절을 오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여행이든 나들이든 밖에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가만히 책을 붙들고 있는 건 인간적이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미학적인 언어처럼 아름답지도, 무한한 상상처럼 자유롭지도 않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 투명함이 어디서 오는지, 왜 잠자리가 코스모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알고 싶다면 잠시 책을 덮어두자. 가을은 방학으로 생각하고 대신 미세먼지가 극성인 봄,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 칼바람이 부는 겨울을 독서의 계절로 명명하자. 가을에 야외 활동도, 독서도 포기할 수 없다면 전국 각지의 책방을 거점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제주로 이주하며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대부분 기부하거나 폐기했다. 삶과 문학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영원한 주제는 아이러니인데, 책을 처분하고 나니 책이 다시 필요하게 됐고, 다시 읽어야 했고, 몰랐던 책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 처음에는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헌책방을 찾았는데, 글이 잘 써지지 않아 오래된 책들을 뒤적이며 이야기를 찾았는데, 정작 이야기는 책 밖에 있었다. 책 내용과 무관하게 책방 주변에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펼쳐졌다.

'동림당'은 제주에 있는 헌책방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관리 요소가 많은 곳이다. 유쾌한 장년의 남자, 무슨 얘기든 막힘없이 이어가는 사장님에게서 오랜 시간 책방을 지탱해 온 내공이 전해졌다. 지금까지 그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한, 이성 중심 사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까지 듣게 됐다.

"와, 책이 엄청 많네요?"

"독서에는 책이 좋죠."

"……."

이곳에 진열된 책에서 비상금으로 추정되는 지폐가 다량 발견되기도 했는데, 누군가 돈이 든 책을 팔았다는 것도 기막히고, 그걸 발견한 손님이 판매자를 찾아 달라고 스스로 밝힌 것도 대단했다.



제주 금오름에서 가을을 나는 사람들 | 우희덕

'구들책방'은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행자들이 유명 관광지에 와서도 책방을 찾는다는 걸 알려준 곳이다. 이곳에서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을 구입했는데, 책 속지에 명문 의과대학 이름과 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득 그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바람을 새긴 것일까 의문을 갖다 포털 사이트에 그 이름을 검색했는데, 학생은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모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늘중고책방'은 그야말로 소규모 책방이지만 마음이 가는 곳이다. 연로한 할머니가 작은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도 마음이 쓰였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이곳에서 찾았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해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는데, 책 속에 짙은 초록을 간직한 네잎클로버가 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행운인가 싶어 휘파람이 절로 나오던 그때, 가만 보니 그것은 네잎클로버가 아닌 세잎클로버였다. 왜 책 속에 들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흔하디 흔한 세잎클로버였다.

나는 세잎클로버 잎 가운데 하나를 조심스럽게 둘로 나눴다. 헌책방이 오래 유지되길 소원하며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가장 오래돼 보이는 책 속에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져왔다. ◉


국토교통부
KTX 이음



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강원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 연합

공감 교육공동체
2022. 10.24-30
676호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
01 헌책방과 네잎클로버

공감 포토
02 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

국정종합
06 "스포츠에 자유와 연대 정신 녹아들도록 최선"

특별연재_ 국민이 즐기는 청와대 개방 ❹
외국인·외신도 주목한 청와대 개방
10 '어서와 청와대는 처음이지?'
외국인·외신도 "개방 좋아요"

정책 하이라이트
14 '탈 플라스틱 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16 수능 3일 전부터 원격수업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 마련
18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합니다
20 스토킹 신고 초기에도 전자장치 부착 가능



24

사실은 이렇습니다
21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서 제외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장관 쏙터뷰 ❺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2 "소상공인이 행복할 수 있게
코로나19와 복합위기 극복에 최선"

공감현장
38 디자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규제혁신
42 "규제혁신으로 1.5조 원+α 기업투자 기대"
44 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
45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문화매력국가로!
46 이달의 추천도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서 ❽
48 딱딱한 사회적 문제를 힘하고 재미있게 풀다



문화체육관광부

표 지 이 야 기

가을,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베일에 가려졌던 청와대가 일반에 활짝 문을 연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역사적 사건인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과 해외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제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인사동을 잇는 관광 벨트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다. 또한 각국 주요 언론은 국내 언론 이상으로 깊이 주목하면서 청와대 개방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 집 **청년아, 다시 뛰자!**

26 ／ “다양한 목소리 실제 반영되는 체계 마련 청년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 누릴 수 있길”

30 ／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34 ／ 조용한 시골이 청년들로 북적북적 불가능에 도전한 청년마을 성공기

홍화정 만화_ 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⑲

50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연재_ 코리아둘레길을 찾아서 ⑲
경기 안산 ‘서해랑길 91코스’

52 만추의 서정이 무르익는 곳으로 훌쩍 떠나볼까?

연재_ 공감 경제 ㉜

56 조선업 강국으로 가는 길

연재_ 케이컬처 ㉚

58 완전체로 돌아온 부산영화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약진

연재_ 공감 우리말 ㊼

60 미주알을 캔다… ‘미주알’은 무엇일까?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㊻
작가 데비 한

62 정답없는 미술, 한국적인 매력을 찾아서

64 **참여공감**



38



52

발행일 2022. 10.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보균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스포츠에 자유와 연대 정신 녹아들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1986년·200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과 기후변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인권의 집단적 유린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협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17일 윤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스포츠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역사가 있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IOC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집행위원 초청 만찬에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2024년 1월 강원 평창·강릉에서 열리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을 위해 IOC 및 ANOC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IO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만큼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달라"고 주문했다.

바흐 위원장은 사전 환담에서 "IOC 목표는 스포츠 경쟁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와 연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로빈 미첼 ANOC 회장 직무대행, 위 자이칭 ANOC 부회장 등이 초청됐다. 아울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겸 IOC 위원,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도 만찬에 참석했다.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

윤 대통령은 10월 18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서 "선거 기간과 당선 이후 5월에 강원을 찾았을 때도 강원의 획기적 도약과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경지역의 제약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이제 강원도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친환경 산업 지역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등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

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울산-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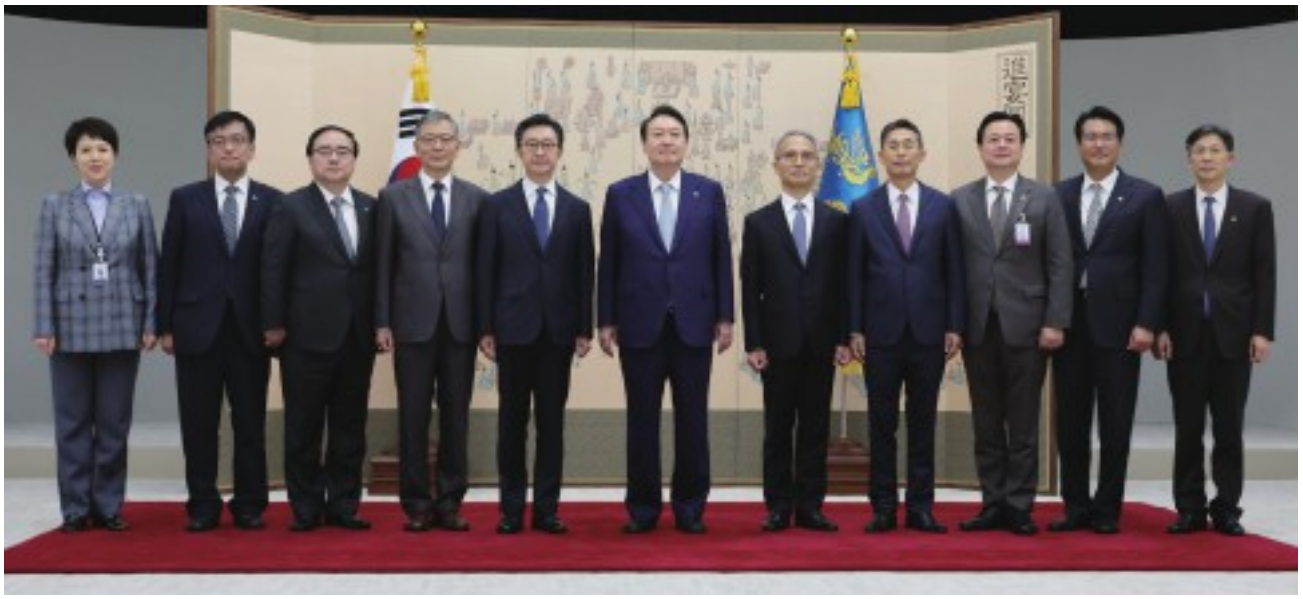
첫 사이버안보 TF 회의 개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 주도로 출범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0월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기간통신망,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강원 속초시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마치고 속초중앙시장을 들러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추계 4개국 신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여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대사, 참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TF는 전날 윤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를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장애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전체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꾸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점검 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월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과 과점상태와 관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빵공장 산재 안타까운 일" 경위파악 지시

윤 대통령은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기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박순빈 기자

‘어서와 청와대는 처음이지?’ 외국인·외신도 “개방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베일에 가려졌던 청와대가 일반에 활짝 문을 연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역사적 사건인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과 해외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제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인사동을 잇는 관광벨트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다.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 등 케이컬처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외 여행사도 외국인을 상대로 청와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의 주요 언론은 국내 언론 이상으로 주목하면서 청와대 개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미국 AP·블룸버그 통신과 시사주간지 〈타임〉, 프랑스 AFP통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유수의 국제 언론은 청와대 개방의 이유와 의미를 살피고 집무실 이전으로 말미암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는 등 자세히 분석했다.

AP “엄숙하던 청와대가 축제 마당으로”

AP통신은 “엄숙하던 청와대 경내가 신이 난 군중으로 축제 마당으로 변모했다”면서 “방문객이 거의 없고 경비가 삼엄했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변화했다”고 적었다(5월 18일). 특히 청와대를 찾은 가족 방문객과 인근 상인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위가 줄고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처음에는 주변 교통이 매우 붐비겠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본다”는 등의 반응을 함께 전했다.

더불어 청와대의 역사적 배경도 자세히 소개했다. 과거 왕의 정원이 있던 부지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총리 관저를 지었고 해방 이후엔 미 사령관 집무실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됐다는 것이다.

AFP통신 역시 달라진 풍경에 주목했다. 청와대는 일반인 통행이 불가능한 ‘요새화’됐던 시설이었지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한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설명이다(5월 11일).

또 정원 개울가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빗장을 연 청와대를 즐기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곳은 한국 고대 왕들과 현대의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유서 깊은 유적지다.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될 걸로 확신한다”는 시민 발언을 전했다.

기사 속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떠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이와 대비됐다. AFP통신은 “일본이 사용했던 부지에 세워진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10층짜리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윤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보도에서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❹ 외국인·외신도 주목한 청와대 개방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 등 케이컬처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관광 통역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 연합

표현을 빌려 청와대 개방의 이유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직에 대한 약속의 표시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이어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어제까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다"라는 등 방문객들의 반가움과 놀라움도 덧붙였다.

타임 "청와대가 국민휴식공간으로 재탄생"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당시 인기가 없는 공약이었다"라고 썼다(6월 17일). 하지만 안보 측면에선 더 방어적인 곳에 위치하면서 지하 벙커를 갖춘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취약하지는 않다는 분석을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100m 앞까지 접근했다는 것이다. 1968년 북한 무장 공작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윤 대통령 취임 당일 청와대에서 펼쳐진 가수 비의 공연에 대해선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묘사하면서 이것이 "한국 권력의 보루에 대한 생각의 기조가 변화했음을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녹음이 우거진 이 62에이커(약 25만㎡)의 부지를 벗어나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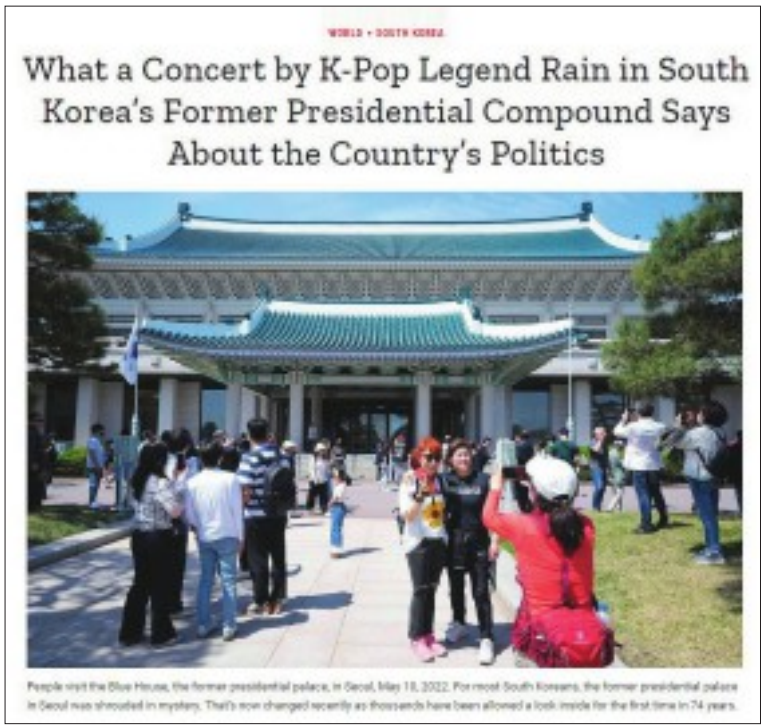
고 말했다"면서 새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청와대시대 마감, 새로 부상하는 서울의 정치권력 중심지'라는 제목의 기사(5월 9일)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말미암아 600년 역사의 수도 서울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저개발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분명 어떤 선언이 된다"는 콘스탄티노스 차프다리디스 시티런던대 구조공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 최대 구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도외시됐던 용산의 재개발이 가속화되며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엄숙하던 청와대 경내가 신이 난 군중으로 축제 마당으로 변모했다"면서 "방문객이 거의 없고 경비가 삼엄했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변화했다"고 적었다(5월 18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을 덧붙여 "윤 대통령은 정치적 볼거리를 넘어선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언론들은 시민들이 울타리 너머로 건물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한 워싱턴 백악관과 비슷한 건물을 짓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라는 점도 알렸다.


WORLD › SOUTH KOREA

What a Concert by K-Pop Legend Rain in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ial Compound Says About the Country's Politics

People visit the Blue House, the former presidential palace, in Seoul, May 18, 2022. For most South Koreans, the former presidential palace in Seoul was shrouded in mystery. That's now changed recently as thousands have been allowed a look inside for the first time in 74 years.

1

1·2 〈타임〉에 소개된 청와대 개방 관련 기사. 타임은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중국·일본에선 '관광지' 부각

중국·일본에선 이웃 나라답게 관광지로서 청와대의 모습을 부각하는 양상이다. 일본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청와대를 직접 둘러본 뒤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교도통신은 "청와대 부지 내에 녹음이 우거져 서울 중심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머리말로 시작해 "청와대가 권력의 상징에서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개했다(6월 17일).

아사히신문은 '서울의 새로운 관광지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제목을 붙인 뒤 "일본 역대 총리가 방문하는 등 현대사의 무대가 돼온 청와대가 5월부터 인기 관광지로 탈바꿈했다"고 전했다(6월 6일).

두 언론은 청와대 정문의 푸른 기와지붕을 묘사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회견장 등이 마련돼 있던 본관을 비롯해 관저, 영빈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의 긴 행렬을 그리는 동시에 "실물을 보고 감격했다", "한국 정치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의 상징"이라는 등 감동 섞인 방문객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9월 5일자 후속 보도에서 새로 이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약식 기자회견의 풍경도 언급했다. 대통령이 연일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는 모습에 대해선 "자칫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가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급속한 변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중앙TV(CCTV)를 비롯한 계면신문, 펑파이, 중국신문망 등 중국 언론은



South Koreans pile in to president's vacated Blue House

About 15,000 people visited the Blue House compound on its first day of full public access
ANTHONY WALLACE/AFP/GETTY IMAGES

The Blue House was built by Japanese occupiers in 1939
ANTHONY WALLACE/AFP/GETTY IMAGES

ANTHONY WALLACE/AFP/GETTY IMAGES

2

엄청난 청와대 방문 인파에 대해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개방 첫날엔 약 2만 6000명의 시민이 모여들었으며 개방 44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펑파이는 청와대는 개방 전에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성사진 노출이 금지됐지만 이제는 청와대 상징인 본관을 위성으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언론은 자국 관광객을 겨냥해 청와대 관람 시간과 사전 예약 방법 등도 자세히 알렸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 세계 집중

튀르키예 휴리옛과 러시아 크라스나야 베스나 등의 언론에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의 소식을 전했다.

휴리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키로 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소개했다(7월 27일).

크라스나야베스나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소개하고 약 50명 장애예술인의 50여 점 작품을 내건 이번 특별전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라고 전했다(8월 10일).

이 밖에도 홍콩, 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인도, 스페인 등의 언론에서도 74년 만에 국민에게 대문을 열어젖힌 '독특한 파란색 기와가 빛나는 청와대'의 소식을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뜻에 따라 변화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눈여겨보고 있다. ◉

조윤 기자

‘탈 플라스틱 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서비스 확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재활용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10월 20일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격 추진한다.

전 세계 석유 10% 플라스틱 생산에 쓰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와 용기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서 2021년 492만 톤(잠정)으로 늘어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7%가 증가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수요는 2030년에 이르면 864만 톤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이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가량이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될 정도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연간 8억 6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석탄발전소(500MW) 189개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의 다회용기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여·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를 대여·회수·세척하는 공급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당 배달 앱 등에선 요청 시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해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 원칙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12월부터 시범 시작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간다.

‘화학적 재활용’ 비율 높인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이 69.1%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other’라고 쓰인 두 가지 이상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플라스틱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 이를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보센터(가칭)’를 운영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18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에스피알을 방문해 재생플라스틱 제조실증화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환경부

고온에서 분리해 열분해유를 만들어내는 화학적 재활용 또한 초기 단계로 처리 용량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을 태워 열을 회수하는 '소각형 재활용'이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지원금 할당 비율을 확대(40→60%)해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화학적 재활용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설계·생산 단계에서 물질의 환경영향이 80% 이상 결정되는 만큼 플라스틱의 두께와 재질, 무게 기준 등을 마련해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활용성 최하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선 처리부담금을 부과한다.

석유계 기반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선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을 유도한다. 전 세계에서 연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옥수수나 목재와 같은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은 현재는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20%만 돼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2022년 하반기까지는 40%를 넘어야 하고 2050년엔 100%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3월 국제연합(UN)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럽 등 주요국이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은 세계적 탈 플라스틱 기조에도 선제적으로 발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보센터(가칭)'를 운영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조윤 기자

수능 3일 전부터 원격수업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 마련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11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른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이번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분리 시험실도 마련

먼저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10월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1265곳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모두 108곳이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곳 지정했다.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진단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모두 108곳이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는다.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또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수능 3일 전부터인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권고할 예정이다. 수능 다음 날인 11월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 또한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1년 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경찰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오전 7시~9시(2시간)에서 오전 6시~10시(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수험생들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1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발표

국가-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합니다



2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합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간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 ⇨ 다중 안전망 구축 ✚ 기반 내실화 ✚ 맞춤 지원 ⇨ 기초학력 보장

3

기초학력,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확대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제공범위를 2022년 초1~고1 → 2024년 고2까지 확대
- 국가수준 기초학력 지원 포털 구축(~'25)
  흩어져 있는 진단도구와 교수학습자료를 연계하여 제공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사용 편의성 제공
-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고도화(~'25)
  학생 문항 반응에 따른 학습수준 맞춤형 지원 가능

4

국가-지역-학교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 정규수업 내 지원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 1수업 2교(강)사제와 연계한 수업 모델 다양화 등 지원
- 학교 단위 지원
  학습, 심리, 건강, 돌봄 등 복합적 요인에 대한 종합-다중 지원팀 운영 확대*
  * 2022년 6천교 → 2024년 8천교 → 2027년 12천교(초 · 중 · 고 전체)
- 학교 밖 전문적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 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 및 지원
  * 2022년 13개소 → 2024년 100개소 → 2026년 모든 교육지원청

5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겠습니다



- **다문화, 탈북 학생**
  한국어 집중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기초학력 학습 지원
- **학생 선수, 대중문화·예술 관련 종사 학생**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습 콘텐츠, 온라인 튜터링 등 제공
- **시설보호아동**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 아동보호센터와 협력하여 기초학습 등 지원
- **소년원학교 학생**
  입원 초기부터 학생 수준 파악 및 진단(고과 및 학습 준비도), 보정자료 지원

6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교과·담임교사 지원**
  교사의 기초학력 관련 현장경험, 전문성을 고려한 단계별 연수 콘텐츠 지원 등
  기초학력 지도 · 지원 전문성 강화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환경 개선**
  담당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업무편중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별 학습지원교육 운영 컨설팅 제공
- **예비교원 지원**
  고·사대생 등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학습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 예정

7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단과 맞춤 지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기초학습 콘텐츠로 수업 전에 미리 학습하고
수업에 참여하니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한결 수월했어요



정보 제공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알게 되었어요



전문성 신장
경력과 수준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좋았어요



단위학교 책임지도
학교 내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교 전체에 확산된 것 같아요

8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학력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에서 확인하세요!

스토킹 신고 초기에도 전자장치 부착 가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접근금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법무부는 접근금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방지했다. 또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서 제외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관련 "고의 연체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고, 원금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서울경제 〈1만원 연체해도 원금탕감에 '일부러 연체' 움직임까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탕감 등으로 악순환을 끊고 새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결심한 이들이 대거 부실차주 신청으로 몰리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폐업한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 자영업자들은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설명】

연체 여부가 부실차주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일부러 이자를 연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 관련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의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의적 연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무효화 됩니다.

– 또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거절·제외되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전까지 연체기록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 이용 불가 및 채권추심 등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 ***한편, 새출발기금은 부득이 연체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유재산, 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 원금감면이 되지 않으며

– 채무액이 보유 재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채무액–보유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연체 90일 이상) 최장 7년간(2년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5년간 신용평가 반영) 신규대출 금지, 신규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기존 신용카드 정지 등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원활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만을 목적으로 연체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정작 영업을 계속 이어갈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관련

○ ***새출발기금은 2년 이상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 부실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02–2100–1671), 한국자산관리공사(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02–750–1071)

국민이 묻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주세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답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방역조치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만에 1200억 원을 돌파한 동행축제에 이어서 12월에는 크리스마스마켓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 질문에 대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행복할 수 있게 코로나19와 복합위기 극복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 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65만 중소기업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대회를 열고 2023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연결(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원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 원이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 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심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청년아, 다시 뛰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에게는 '청년의 꿈,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청년의 꿈과 도전이 국가 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며 전 지역에 걸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국정비전과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의 지원 대상을 연령층별로 나눠보면 청년층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각 부처는 기존 청년정책들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세심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층 관련 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 참여의 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일시적인 실업난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면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의 변화까지 고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청년이 원하는 삶의 핵심 기반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 지원 대책에 힘입어 한때 '고용 절벽' 우려까지 나왔던 청년 실업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5.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창업 생태계 세계(글로벌) 진출·유입 활성화, 시장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도입, 세계 혁신특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년 지원 대책을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고 출범 뒤 지금까지 발표된 청년 정책이 어떻게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다양한 목소리 실제 반영되는 체계 마련 청년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 누릴 수 있길"

청년이 직접 말하는 '청년 정책'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의 핵심이었던 일자리와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금융·복지·문화 등 국정 전반에 청년정책이 중심에 놓이게 됐고 9개 주요 정부 부처에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9월 '청년보좌역'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직접 청년의 삶을 바꿔보겠다며 나선 두 명의 청년을 만났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대표는 '내 삶엔 정말 필요한데 왜 정책과 제도가 없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7년 설립된 자발적 시민네트워크다.

20대 젊은 사업가인 이재형 씨는 가상화폐와 주식 등에 몰두하는 청년들의 최근 투자열풍을 지켜보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점차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염원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고용 문제 해답, 중소기업서 찾을 수 있어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주형 대표는 "청년이 마주한 노동시장에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이 62.8%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취업자 수도 2021년 8월 대비 80만 7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취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청년들의 실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가 "숫자 너머 실제 청년의 삶에 주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는 이유다.

이재형 씨는 이 같은 현실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수혜를 입은 곳들도 있는

> 빚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사는 곳이 불안하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만큼 채용에도 큰 타격이 없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와 소득세 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근무 강도와 근무 환경 등이 더 개선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에 재직할 만큼 중소기업은 보편적 일터"라면서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불완전하고 사내 복지와 교육훈련 역시 부족하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가 삶의 불안 야기… 정부 적극 개입해야

한편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지옥고'에 빗대어 불리기도 한다. 저소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에 청년이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 가운데 두 사람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 씨는 청년원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곧 내놓을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는 결국 결혼과 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주목했다. 자가나 전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지만 현실에선 대부분의 청년이 월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청년월세지원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주거 문제는 청년에게 있어 '삶의 다층적 불안과 싸우는 문제'라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빚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사는 곳이 불안하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대출 쉬워져야 '생계형 부채' 없어

이 같은 주거 불안은 주식·코인 등 청년들의 '투자 열풍'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의 문제로 여겨졌던 자산 격차는 같은 청년세대 안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20대 사업가 이재형 씨

이 대표는 "이전 같으면 청년 부채라는 게 학자금 대출만을 떠올렸겠지만 최근엔 집을 사고 고액 투자를 하기 위해 몇 억씩 대출을 받는 청년, 생계 때문에 몇 백만 원을 고금리로 빌리는 청년 등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생계형 부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열린 청년문답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다. 그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기의 특성상 소액의 빚으로도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부담 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년세대 내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햇살론 유스' 등을 통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청년들의 금융 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3년 도입하기로 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두 청년은 한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이 당장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큰 힘이 되지만 한 달에 최소 4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것이 누군가는 쉽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 극복해야

두 청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에도 주목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도 인재를 빼앗긴 지방도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교육격차를 포함해 포괄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 예로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을 들었다.

이 씨는 지방대가 지역 대표 기업과 손잡고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부는 중간에서 이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졸자와 고졸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토대로 하는 청년세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대표는 "청년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는데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모두 다르다. 청년들이 정작 '나를 위한 정책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고 짚으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국정 운영 체계를 더 규모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낚싯대를 쥐어주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윤 기자



1



2



3

1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금융위원회 2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8월 3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이야기(토크)쇼 '청년농, 희농애락을 말하다'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농촌진흥청 3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년 도약 프로젝트 발대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윤석열정부 청년 지원 정책

청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사다리'는 일자리이다.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청년 고용사정은 유례없는 호전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7.3%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높아지며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8월 청년 실업률은 5.4%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하지만 고용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많다. 여전히 높은 체감 실업률이 이를 방증한다.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훈련체계 때문에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 및 채용 경향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주 지원 중심에서 청년 수요 중심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아울러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일경험 기회의 대폭 확대 및 청년과의 체계적 연계,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은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훈련, 일경험 및 취업 실전 기술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청년 맞춤형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 본격 추진

일자리 정책

새로운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은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훈련, 일경험 및 취업 실전 기술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대학 저학년생에게는 가칭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정보 탐색 및 희망하는 취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등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공 및 관심 직업의 임금, 일자리 수요, 필요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이후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및 직업탐색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직장체험 등을 지원받아 진로탐색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고학년 청년 대상으로는 가칭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를 운영해 실제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구직의욕과 취업역량에 기반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프로그램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충분한 청년에게는 AI 면접 지원,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실전 기술 향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훈련이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활동 계획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는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민·관 협업의 두 가지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로 대기업 그룹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적 전문성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정부는 일부 운영비와 청년 참여자 수당,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증서를 부여하는데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70개 기업 또는 단체가 가입해 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호 공급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공급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역세권 첫집은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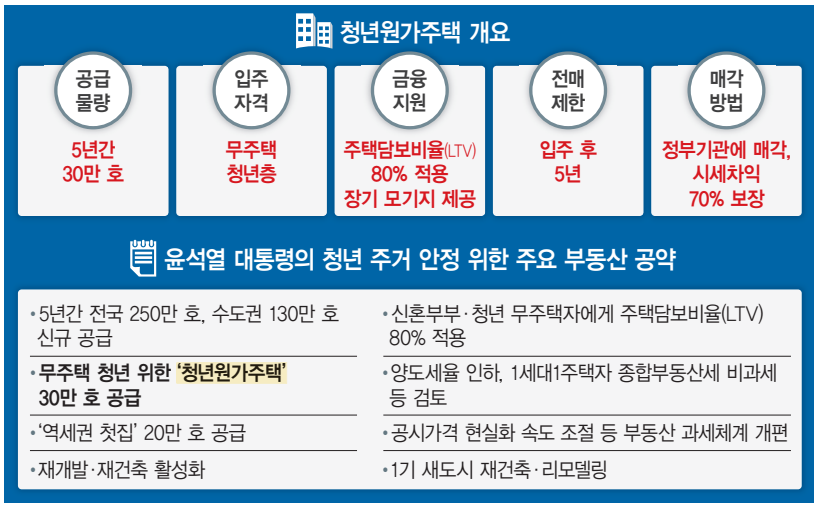
청년 주택 수요자들에게 벌써 높은 관심을 받는 청년 원가주택을 말 그대로 거의 원가에 분양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설계된다. 여기서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 대신 매각할 때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 공공기관이 환매 우선권을 갖는다.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

다만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한다. 청년들로서는 부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중간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찮아 매각하더라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 등을 10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뒤 7년이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70~80%선에



서 공급된다. 아파트는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는 월세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보장된다.

'청년도약계좌' 도입해 목돈마련 기회 제공

금융 정책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줬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에 대한 금융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자산 증식 지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중심에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2023년부터 도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져 파산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할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담겼다.

이 제도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에 따라 이자 30~50% 감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등이 골자이다.

9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신설 청년세대 의견 수렴

참여 정책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 11월 중순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 부처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년보좌역을 채용하는 9개 부처에서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정부는 9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박순빈 기자

조용한 시골이 청년들로 북적북적 불가능에 도전한 청년마을 성공기

‘청년마을’로 변신한 충남 서천 한산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서천군과 함께 한산면에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를 조성했다. 2018년 도시 청년 32명을 지역에 정착시킨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의 후속 사업으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도시 청년들이 인구유출로 고민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청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버려진 여관 고쳐 마중물 공간으로

9월 27일 한산면의 ‘커뮤니티호텔H’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 아래 감각적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라운지와 공용 주방이 나타났다. 한때 한산모시를 거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북적였던 여관이었지만 10년 넘게 방치되다 호텔로 재탄생해 2020년 말 문을 열었다.

버려진 서광장여관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고쳐 호텔로 개조한 이들은 삶기술학교를 운영하는 청년들이다. 삶기술학교 출신 청년들이 머물 거주공간과 숙박시설이 부족하자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한달살이하는 임시 거주지와 한산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김혜진(31) 공동체장은 “2017년부터 한산모시문화제 청년기획단으로 활동하다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을 알게 됐다”며 “천연섬유 모시와 전통명주 소곡주 같은 한산면의 다양한 전통 기술이 청년 기획자 입장에선 새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져 주민들과 함께 삶기술학교를 제안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배출한 200명 중 20여명 정착 시도

삶기술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은 버려진 빈집을 고쳐 살면서 모시와 소곡주를 비롯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험을 이어왔다. 3년 동안 배출한 204명 가운데 20여 명이 지역 정착을 시도했다. 사진관 겸 기억공간 ‘기억상사’와 마을 그림교습소 ‘그림한담’을 열었고 인근 국립생태원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15명만 남아 있다.

김 공동체장은 “그 친구들이 정착할 집이 없었다. 가게도 임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매매로 나오는데 도시와 비교해도 싼 편이 아니었다. 10여 곳의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 마을을 100번


1


2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천연섬유 모시와 전통명주 소곡주 같은 한산면의 다양한 전통 기술이 청년 기획자 입장에선 새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져 주민들과 함께 삶기술학교를 제안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됐다.

1 2022년 7월 문을 연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앞에 김혜진 공동체장(왼쪽부터), 김수영 디자이너, 이동관 개발본부장이 섰다. 오른쪽 건물은 한산유림회관 2 커뮤니티호텔H의 공용 주방 3 10년 넘게 방치된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서광장여관을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직접 고쳐 2020년 말 문을 연 '커뮤니티호텔H' 4 커뮤니티호텔H의 1인실





5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1층에는 스마트 공유 사무실, 2층에는 디자인실, 미디어실, 프로듀싱실 등 여러 작업 공간이 있다. 6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1층에는 스마트 공유 사무실, 2층에는 디자인실, 미디어실, 프로듀싱실 등 여러 작업 공간이 있다. 7 김혜진 공동체장이 각각 다른 색깔의 병에 담은 4가지 소곡주를 설명하고 있다.

정도 왔다 갔다 했을 정도"라고 했다.

삶기술학교 사무실도 구하지 못해 시작도 못 해보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산향교의 유림들이 만든 한산유림회관의 문을 두들겼다. 며칠을 설득한 끝에 '공간을 쓰는 대신 한산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복도 한 쪽을 쓸 수 있었다.

김 공동체장은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활동할 마중물 역할의 공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호텔을 짓게 됐다. 저희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주민들도 '애네들이 진짜 오래 있을 생각이구나' 인정해주셨다"고 말했다.

1인실 7개와 2인실, 6인실 등 모두 9개의 숙박공간은 주말에는 손님이 꾸준하지만 평일이 문제다. 그는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충남벤처협회와 협약(MOU)을 맺고 10월부터 충남 지역 벤처기업 직원들이 4박 5일 동안 커뮤니티호텔H에서 머물며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에서 일하는 워케이션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 저희가 2017년 한산면에 처음 왔을 때 주민이 2800명 정도 살고 계셨는데 지금 2500명이에요. 한산소곡주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려 쇠퇴하고 있는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디지털노마드센터 워케이션에 기대

올해 7월 문을 연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는 유림회관 바로 옆에 있었다. 서천군이 2021년 10월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뽑혀 유림회관 리모델링과 함께 새롭게 지은 공간이다.

1층은 디지털 노마드(유목민)를 위한 스마트 공유 사무실로 접이식 문(폴딩 도어)을 개방하자 황금색 들녘이 펼쳐졌다. 2층에는 디자인실, 미디어실, 프로듀싱실 등 여러 작업 공간에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제작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디지털노마드센터뿐 아니라 마을 어디에서나 공공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을 이용할 수 있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업무가 가능했다. 디지털노마드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김 공동체장은 "삶기술학교에 오는 청년들 대부분 디지털 노마드 친구들인데 유림회관에서는 인터넷도 안 됐다. 이번에 스마트타운 사업을 통해 한산면 전체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디지털 노마드 청년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한산면 주민자치회 세미나와 청년마을 사업 설명회도 여기에서 열렸다. 한산면 거리에는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그랜드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청년들이 불어넣는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1500년 전통 가양주에 매력 느껴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1층에는 술병들이 전시돼 있었다. 언뜻 보면 와인처럼 생겼지만, 주민의 전통주 제조 기술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한산소곡주였다.


7

김 공동체장은 "청년들이 한산면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게 15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주 메이커 도시라는 점"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 가양주 방식으로 소곡주를 집에서 담그시거든요. 한산면에만 68개의 허가된 양조장이 있어요. 여기 와서 소곡주라는 술을 처음 접하고 '되게 매력적이다',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예로부터 뛰어난 맛과 품질로 앉은뱅이 술이라고도 불린 한산소곡주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빈을 위해 만찬주로 대접했다. 청년들은 지역의 전통자원을 단순하고 담백한 현대 감각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주, 숙성주, 멸균주, 증류주 등 네 가지 소곡주를 각각 다른 색깔의 병에 담아 '화이트', '블랙', '골드', '블루' 등으로 명명했다. 가격도 2만~7만 원대로 다양하게 구성해 어르신뿐 아니라 최근 전통주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의 수요까지 노렸다.

"저희가 2017년 한산면에 처음 왔을 때 주민이 2800명 정도 살고 계셨는데 지금 2500명이에요. 5년 만에 300명이 줄어들 정도로 저출생 고령화된 사회인 거죠. 한산소곡주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려 쇠퇴하고 있는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주민과 소곡주 유통 법인 창업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소곡주를 판매한 매출이 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네 가지 와인을 여러 구성으로 기획한 선물 세트가 잘 나간다.

이런 반응에 확신을 갖게 된 주민과 청년들은 최근 소곡주 전국 유통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슬로커'를 만들었다. 이날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2층에서 슬로커 개발·디자인 회의가 한창이었다.

기술 책임자인 이동관(45) 개발본부장은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다 2년 전 서천으로 귀촌했다. 올해 7월 한산면에서 청년들을 우연히 만나 슬로커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그는 "소곡주가 이곳에서만 생산하고 소비되는 정도인데, 온라인 납품을 통해 전국으로 직배송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다.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젊은이들이 전통주를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산 양조장을 바탕으로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이미지(BI) 작업 중이라는 김수영(49) 디자이너는 "젊은 층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직장 동료였던 김 본부장으로부터 이곳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들었다는 그는 "디지털노마드센터가 새롭게 생겼고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 달 전 한산면으로 왔다. 예술가나 창작자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청년마을 27곳 운영

2018년 처음 시작한 '청년마을 사업'은 올해 신규 12곳을 포함해 전국 2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전국 133곳이 지원했으며 11: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을 살펴보면 개성 있는 지역 자원과 특색 있는 소재를 가진 청년사업이 집중 발굴됐다.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는 노인 증가와 청년 이탈이라는 함양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와 청년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할머니의 음식 비법을 지역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청년과 지역민을 연결하여 세대 간 공감을 돕는다.



〈고마워,할매〉 인스타그램

강원 영월군은 자급자족하는 삶과 마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퍼머컬처)을 도입하고, 경주시 감포읍 '가자미 마을'은 대표 자원인 가자미로 식당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직접 메뉴를 만들고 홍보·디자인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근대문화가 살아있는 전북 군산시는 양조장이 있던 말랭이 마을에 청년이 주도하는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은 외지 청년과 현지 청년을 모집해 빈 점포를 재구조화하고 지역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활동을 펼친다.

강원 태백시와 경남 하동군의 청년마을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정보통신(IT) 기술과 접목해 기록으로 남기고 지역 살이 경험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열린 문화역서울284

10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는 흰색, 주황색, 파란색 등 세 가지 색깔의 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흰색은 서울역, 주황색은 RTO(아르티오), 파란색은 '길몸삶터'로 안내하고 있었다. 길몸삶터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의 주제전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일상 속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과 그에 따른 실천의 결과물을 모은 행사다. '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이라는 부제처럼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이웃, 도시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한 작품이 전시된다. 정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날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80여 곳에서 주제전시와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사례를 공유한다.

'처음 관계 맺기' 놀이터 통해 공공성 조명

공공디자인의 대표 사례인 색깔 유도선(컬러 레인)은 혼란스러운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갈림목에서 명확한 차로



1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일상 속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과 그에 따른 실천의 결과물을 모은 행사다.



1 10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4학년 학생들이 '서로서로 놀이터'의 시소와 풍선을 체험하고 있다. 2 서울역광장에 그려진 색깔 유도선이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전시관을 안내하고 있다. 3 ㈜두성종이는 종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를 압착한 소재로 의자를 만들었다.

유도 안내를 위해 도입됐다. 특정 방향의 주행 차선을 분홍색과 녹색의 선으로 운전자에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문화역서울284 중앙홀로 들어서자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4학년 50여 명이 단체로 관람하고 있었다. 주제전시 감독을 맡은 안병학 교수와 큐레이터로 참여한 석재원·김예니 교수가 제자들을 초대한 것이다. 안 교수는 "정부 주도로 공공디자인을 우리 일상에 확산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 성과를 묶어내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여기 있는 게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은 아니고 예술가와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확장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홀에는 '서로서로 놀이터'라는 간판 뒤로 형형색색의 시소와 커다란 풍선이 놓여 있었다. '서로 협력을 통해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체험 공간'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풍선은 한 사람이 밀면 옆 사람이 튀어나간다. 시소는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기구다.

석 교수는 "사람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르다. 선입견을 없애고 처음(공공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 밖의 사람을 처음 만나 관계를 맺는 놀이터를 재현했다"고 했다.

'서로서로 놀이터'의 전시물은 마음껏 만지거나 탈 수 있다. 교수들이 먼저 풍선에 기대며 시범을 보이자 주저하던 학생들도 짝을 이뤄 시소를 타고 풍선에 몸을 부딪쳤다. 교수들은 "풍선을 밀거나 퉁퉁 튀기는 건 괜찮은데 풍선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윤·가치 함께 추구한 기업도 참여

'서로서로 놀이터' 옆 '두루두루 시장'은 벼룩시장 같은 분위기였다. 실제로 여러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석 교수는 "공공디자인을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다 공공성이 있다.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의미도 추구하는 기업을 작가로 초대했다"고 했다.

최근 재화나 용역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일에 친환경, 공정무역,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담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판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28개 기업이 참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작가로 참여한

전시실도 있었다.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선택지'는 40년 동안 세계 주요 제지사들의 다양한 종이를 국내에 소개해온 ㈜두성종이 디자인연구소가 기획했다. 친환경 용지의 특징, 자투리 재사용 아이디어, 재활용을 돕는 제작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연출했다.

'프로젝트 100: 종이의 여정' 전시실은 누런 색깔의 둘둘 말린 재생지로 가득했다. 현대백화점에서 발생한 폐지를 수집해 다양한 실험을 거쳐 만든 폐지 함유율 100%의 재생지였다. 석 교수는 "재활용한 종이를 30% 이상만 넣어도 '재생지'라고 할 수 있다는데 현대백화점은 자신들이 사용한 종이를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목표로 100% 재생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기존 쇼핑백 대신 100% 재생지 쇼핑백을 도입한 현대백화점은 연간 약 8700톤의 폐지로 1만 3200그루의 나무를 보호하고 329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자인은 그 자체로 공적 가치 지향의 행동이자 태도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이 디자인의 공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공공의 정원' 전시실에 들어서자 화려한 색상의 선인장들이 눈길을 끌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화훼 수출 작물로 전략 개발했던 '컬러 접목 선인장'이다. 이소요 작가의 '관상용 선인장 디자인'은 컬러 접목 선인장의 역사, 동식물 접목과 이식 기술, 인간·비인간 생물의 공존에 대해 짚어보는 다큐멘터리 설치 작품으로 인간이 야생에서 식물을 얻어 관상용으로 길들이고 상품화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 '곤충호텔'

김예니 교수는 "원래 선인장은 초록색밖에 없는데 이 선인장은 수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빨간색이나 노란색 부분을 접목한 것"이라며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고 변경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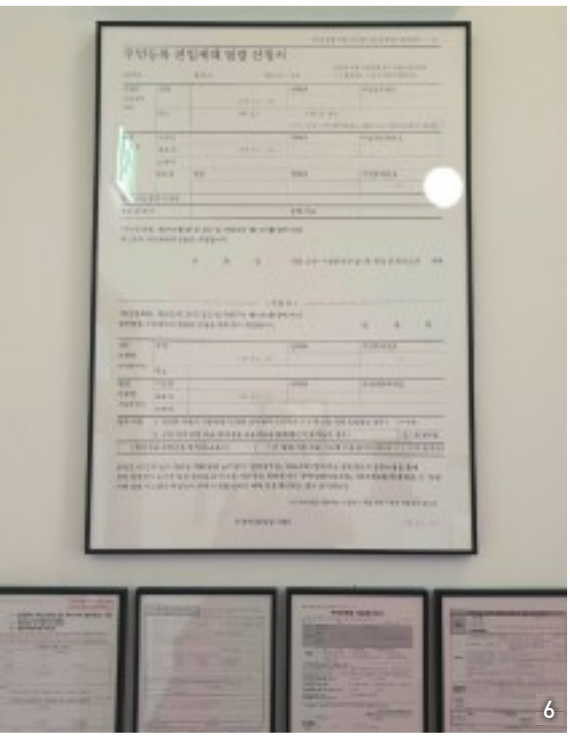
'작은 생명을 위한 디자인' 전시실에는 낙엽, 나뭇가지, 수피 등 다양한 자연물과 벽돌, 기와 등 인공 구조물이 한 줄로 전시돼 있었다. 이런 재료들로 만든 '곤충호텔'이 집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2022년 1월 한반도 남부 양봉 농가에서 월동하던 꿀벌들이 집단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사건은 여러 언론에 '꿀벌 실종 미스터리'로 보도됐다. 실종 원인은 들쭉날쭉한 이상기온 때문이었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농약과 살충제로 생존을 위협받는 작은 생명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가 '곤충 호텔'이다.

'모두의 민원' 전시실은 주민센터를 재현해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가운데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서식대가 놓


4


5

4 학생들이 낙엽, 나뭇가지, 수피 등 다양한 재료들로 만든 '곤충 호텔'을 보고 있다. 5 석재원 교수(앞쪽)가 현대백화점이 만든 폐지 함유율 100% 재생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6 이경수·신주화 작가가 새롭게 디자인한 서식(위)은 복잡하고 제각각인 현재 서식(아래)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여 있고 벽에는 출생부터 사망 신고에 이르기까지 인생 주기에 따라 다양한 민원 서류로 가득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민원 서식을 나란히 놓고 보니 통일성 없다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서식마다 글자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서식은 연락처를 쓰는 칸은 엄청 큰데, 주소 칸은 지나치게 작아 작성하기 불편해 보였다.

'모두의 민원'은 가장 인상적인 작품

반면 이경수·신주화 작가가 새롭게 디자인한 서식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던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석 교수는 "이 작업이 더욱 멋진 건 레이아웃(배열)이랑 조판만 통일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한자 용어까지 누구나 읽고 쓰기 편하게 생활어로 바꿔놓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동준모 작가는 수월한 서류 작성을 위해 보다 나은 구조의 서식대를 설계, 제작했다.

심규민(23) 학생은 오늘 본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모두의 민원'을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을 고치겠다는 주제가 명확했다"며 "다른 작품들도 집중한 지점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주제'를 갖고 한 작업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 공적 가치 지향의 행동이자 태도"라며 이번 전시가 디자인의 공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

글·사진 원낙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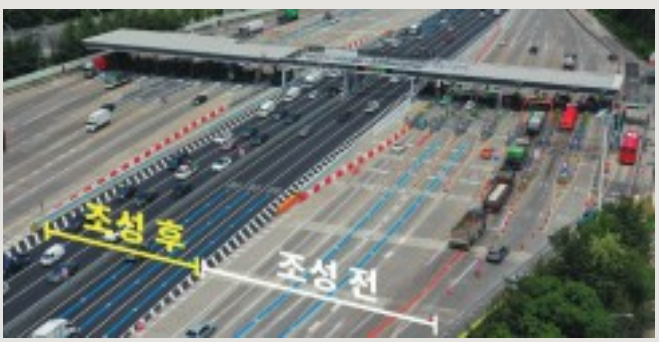
202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한국도로공사 '선순환 체계' 수상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연 '제15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공공디자인 선순환 체계'가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선순환 체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공모하고 고객 디자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국민참여형 디자인정책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통합형 다차로 하이패스 갠트리'(수평 철 구조물 중간에 지지대를 내려 다리 모양으로 만든 구조물), 휴게소에서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한 '휴게소 통합 안내 및 동선 유도 디자인' 등이 대표 사례다.

사업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 동작구청의 '주민 체감형 도시 틈새 공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고도화 사업'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건축사사무소 유어예의 여수 구봉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 조조와 당진시 신평면 매산2리 마을회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연구 부문 최우수상에는 팍스아이앤디 신재령 씨의 '정서적 적응성 환경 특성 기반 산업유산 재생(IHR) 공간디자인 전략 연구'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인천가톨릭대 장주영 씨 등 3명이 연구한 '서울·경기지역 고령자 서비스 지원주택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특별상은 홍익대 심윤서 씨의 '리질리언스 관점의 바이오필릭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가 뽑혔다. 수상작은 공공디자인대상 누리집(publicdesignprize.imweb.me)에서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합형 다차로 하이패스 갠트리'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으로 1.5조 원+α 기업투자 기대”

정부,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 시 최대 적재량을 10톤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 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한 달여 간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 2000만 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 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2023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

정부는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해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해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자격시험과 중복되는 교육은 면제

한편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휴대전화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등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찬영 기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특화지역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최대 6년간 규제특례 적용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장소도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전망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늘린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길 기대한다"며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영 기자

이달의 추천 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책나눔위원회가 매달 일곱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용일반 ▲그림책·동화 ▲청소년 분야의 추천 도서는 여러분의 독서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공감〉은 책나눔위원회의 추천 도서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분야	●도서명	●저자	●출판사
문학	거기에는 없다	서효인	현대문학
인문예술	미끄러지는 말들	백승주	타인의사유
사회과학	라디오 연극 키네마	이상길	이음
자연과학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이종필	사계절
실용일반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김미향	한겨레출판사
그림책·동화	나는 안내견이야	표영민 글/조원희 그림	한울림스페셜
청소년	교실 영화관으로 초대합니다	인문학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호밀밭



문학

거기에는 없다

서효인 지음 | 현대문학

'교실에서'라는 시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더듬어 가며 잊었던 마땅한 분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심심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애들을 곤죽이 되게 때리던" 선생들이 떠올라서. '병원에서'라는 시를 읽으면 눈물이 고일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의 기록이므로. 게다가 〈거기에서 만난〉까지 읽는다면 우리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삶에서 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이자 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두 발로 딛고 선 죽음을 잊으려" 견디고 살아내려는 의지를. 그러나 이 시집은 감상적이지도 않다. 시인의 목소리는 이성적으로 들린다. 그 안에서 퍼지는 '이것은 사람입니까?'라는 울림은 그래서 더 뜨겁고 생생하다. 어째서인가, 시인이 언젠가는 이 시집에서 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는.

조경란(소설가)



인문예술

미끄러지는 말들

사회언어학자가 펼쳐 보이는 낯선 한국어의 세계

백승주 지음 | 타인의사유

사회언어학자 백승주 선생의 책은 순수한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선생은 이 책에서 늘 미끄러지고 유예되는 말들의 의미가 감추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따라서 선생의 관심은 언어와 사회, 역사, 문화, 정치가 맺는 함축적인 관계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우리말이 차별과 혐오, 배제로 기능하는 방식을 고찰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에필로그에서 선생은 대다수 여성 동료들이 나누던 자매들의 언어가 어떻게 연대와 돌봄의 언어로 기능했는지 환기하고 있다. 그것은 합리, 효율, 경쟁력이라는 이름들 아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남자의 언어에 대한 성찰을 표현하는 맺음말이다.

진태원(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과학

라디오 연극 키네마

식민지 지식인 최승일의 삶과 생각

이상길 지음 | 이음

1920~30년대 일제강점기에 경성을 중심으로 서구적 대중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이 작가이자 라디오 피디로 일하면서 연극, 영화, 음반, 무용 등 다방면의 공연 예술을 기획했던 모던 보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승일. 1930년대 도쿄에서 시작하여 베이징, 상하이, 뉴욕, 파리, 헤이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한국 무용을 널리 알린 무용가 최승희의 오빠다. 최승희가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는 과정에도 그의 기획력이 작용했다. 이 책은 식민지 시대 문화기획자 최승일이 조선의 예술과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고민하면서 다방면에서 대중적 문화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은 근대적 대중문화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지식인이 걸었던 행로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정수복(사회학자·작가)



자연과학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이종필 지음 | 사계절

이 책은 물리학자가 쓴 과학적인 태도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과학은 어렵다. 우리에게 과학이 어려운 것은 과학이 우리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관한 지식체계이다." "우주의 언어는 인간에게 아주 낯설다." "과학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각, 나의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통찰을 얻는 첫걸음이다." 이 책은 이러한 멋진 잠언들로 가득하다. 과학이란 무슨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조근조근 전해준다.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실용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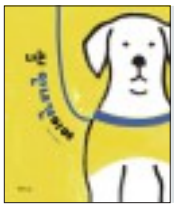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김미향 지음 | 한겨레출판사

신문 기자인 저자가 인터뷰하고 취재해서 쓴 책이기에 현장감이 느껴지고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읽힌다. 독자들을 대신하여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느낌이다.

부제목에 왜 '나만의 온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저자는 우리가 "열탕 같은 대도시의 좁아터진 삶, 냉탕 같은 사회 기반 부족한 삶" 둘 중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둘 다 싫어요, 38도 온탕은 없나요?"라고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탕은 "중간 규모 도시에서 적절한 공간과 인프라를 누리며 쾌적하게 사는 삶"이 되겠다. 설령 '탈서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자신의 삶을 곰곰이 되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표정훈(평론가)



그림책·동화

나는 안내견이야

표영민 글/조원희 그림 | 한울림스페셜

안내견의 눈으로 보고 느낀, 낯설고 고단한 하루를 담은 그림책이다. 안내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시각장애인과 산책에 나선 안내견. 책을 펼치면 "드디어 시작!"이라고 외친다. 안내견의 눈으로 전한 하루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편견과 무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림책은 전혀 상투적이지 않다. 이는 조원희 작가의 힘 있으면서도 다정하고 따뜻한 그림 때문이다. 따뜻한 그림은 짧고 간결한 텍스트와 어울려 우리 마음을 조용히 울린다. 쉽지 않은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안내견은 말한다.

"언니도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난 언니와 함께 걸어서 좋았어요. 우리 내일도 산책해요."

우리 모두에게 언니와 반려견의 마음이 되어보게 하는 그림책. 감동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다.

최현미(문화일보 문화부장)



청소년

교실 영화관으로 초대합니다

인문학동아리 '귀를 기울이면' 지음 | 호밀밭

한 편의 영화는 텍스트로 얻을 수 없는 감동과 교훈의 메시지를 오감을 통해 전한다. 이 책에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기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람 에티켓, 교실 영화관, 영화를 즐기는 방법, 쿠키 영상 등 책의 구성 자체가 영화를 보는 과정을 담았다. 중학생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어설프고 엉성하지만 그들의 고민과 생각의 깊이는 기성세대와 크게 차이가 없다.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며 타인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운 결과물에 박수를 보낼 만하다.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흐뭇하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부딪치며 세상을 읽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낸 책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뤄낸 성취의 기록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류대성(〈읽기의 미래〉 저자)

딱딱한 **사회적 문제**를 **힙**하고 **재미**있게 풀다

❽ 레인메이커협동조합



1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에는 '대화의장'이라는 이색적인 카페가 있다. 1920년대 대화장여관이 변신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옛 건축물의 역사성과 가치를 그대로 살려 1900년대 초반 분위기를 풍긴다. 대구 지역 1세대 마을기업인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은 대화의장을 재탄생시켜 "다양한 이들이 한데 모여 낯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낯선 대화는 꼭 필요하지만 막상 꺼내기는 힘들었던 속 깊은 대화를 의미한다. 건축물의 옛 이름을 계승한 듯하면서도 이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화의장은 주제별로 7개 공간으로 나뉜다. '대화빌라', '대화광장', '대화의 꽃', '대화주방', '대화강당', '대화살롱', '대화클럽'으로 이뤄져 있다.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놀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화강당은 각종 강연과 공연·전시가 이뤄진다. 특히 대화주방은 단체로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음식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요리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은 2013년 조합을 설립해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 전국 우수 마을기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1년 '모두애(愛)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사회적 쟁점, 사진·영상 통해 콘텐츠화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은 그동안 각종 사회적 쟁점을 사진이나 영상, 디자인 작업을 통해 콘텐츠화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 젠더(gender)·청년·소수자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은 홍대 플리마켓(벼룩시장) 축제에서 영감을 얻어 2011년부터 지역의 예술가가 많은 방천시장에서 '토요반짝예술시장'을 운영하면서 출발했다. 방천시장은 대구 수성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1945년 광복 후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생긴 시장이다. 6·25전쟁을 거치며 성장했던 방천시장은 이후 쇠락의 길로 들어섰으나 2009년 방천시장 옆 골목에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조성되며 문화예술가들이 몰려들어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토요반짝예술시장은 예술가들은 물론 방천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예술가와 시민들을 이어주는 '방천 소셜마켓'으로 성장했고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구 교동시장으로 나오게 됐다.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은 소셜마켓 갤러리스토어 교동점을 비롯해 동성로점, 동성로핫트랙스점 등 제작자들의 상시적인 수익을 위해 위탁판매 공간 9곳을 운영했다.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낸 제작자가 80여 팀이 넘었다.

또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전문디자인업, 미술 공예품, 의류 및 패션 잡화 제조업, 방향제 및 생활용품 제조업 등 다양한

"지역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디자인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고 조금이나마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0년 대구 청년귀환 프로젝트인 '자유도시대구 대프리구'. 2021년 탄소중립 시민행동 출퇴근 챌린지와 'RE100시민클럽' 캠페인은 물론 대구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지지자의 축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일 〈WISH 4 ○○〉 관련 콘텐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아트 디렉팅하며 다양한 단체와 연대한 바 있다.

대화의장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낯선 대화'를 위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대화카드', '대화일기', '대화트럼프' 등을 통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낯선 대화를 경험할 수 있다. 2021년 '대화일기×대화카드' 제작을 위한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서 399명의 후원자로부터 2158만 4500원을 지원받아 목표치의 1079%를 달성했고 대화트럼프 제작에는 147명으로부터 698만 8000원을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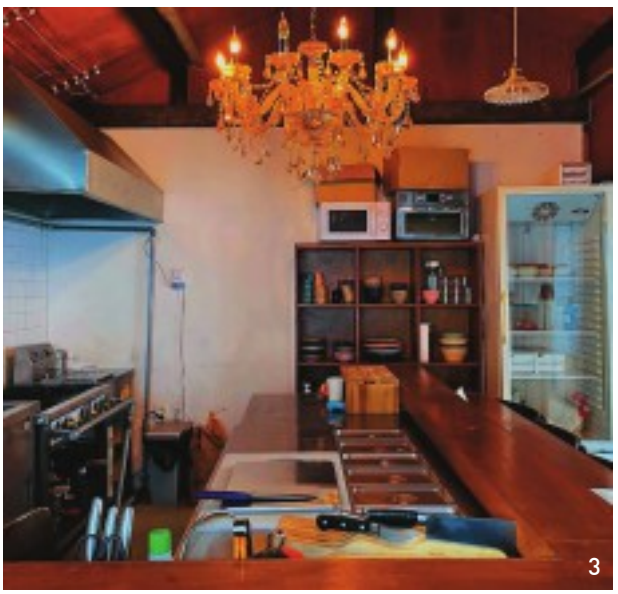
"지역 떠나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2020년부터는 과거의 예술가와 현재의 예술가를 잇는 향촌르네상스를 만들어 공연, 전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촌르네상스는 대구광역시·대구관광재단과 함께 1950~60년대 대구의 문화·예술·경제의 중심이었던 향촌동(북성로) 관련 이야기를 발굴해 원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성소수자, 길고양이, 환경, 인권 등 사회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weah'라는 상표로 매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옷이나 관련 상품(굿즈)의 대중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weah'는 딱딱한 사회적 문제를 힙하고 재미있게 풀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만수 레인메이커협동조합 대표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진·영상·디자인을 통해 상품과 행사를 브랜딩하고 함께 모여 벼룩시장을 열고 공간을 꾸미고 전시를 하며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기반시설(인프라)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대화의장 외부 전경 2 이만수 레인메이커협동조합 대표 3 대화의장 '대화주방' 전경

정민아 디렉터는 "지역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디자인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고 조금이나마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

글 이찬영 기자, 사진 대화의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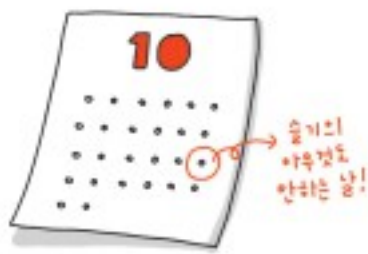
슬기의 여유를 찾아서

그림 홍화정

19.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올게 씨도 한 번 해봐요~
주말 잘 보내요!
아무것도 안하는 날
잘 보내요~
음- 아무것도
안하는 날이라.
하긴, 지난
주말도 …
청소하기
장보기
빨래 개기…
휴~
언제 다
해를 무엇가 해야 하는
날만 보냈을까.
늘 평일처럼 바빴어.
그러고
보니까~
해야 하는 날들 속에
하루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의무적으로 정한다니!
좋은 생각이다!
집에 가서 나도 정해볼까?


10
올게의
아무것도
안하는 날!

만추의 서정이 무르익는 곳으로 훌쩍 떠나볼까?

경기 안산 '서해랑길 91코스'

10월 하순, 가을을 채 음미하기도 전에 한기부터 엄습한다. 만추를 부르는 자연의 조화다. 이제 계절은 더욱 홍시처럼 무르익을 참이다. 이 맘땐 어디를 나서도 운치가 있다. 알록달록 단풍 낙엽이 수북이 쌓인 숲길도,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바닷가 또한 가을날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차가울수록 더 아름답게 번지는 서해안의 낙조를 바라보는 '노을멍'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다독여 줄 최고의 명약이다.

마침 수도권 지척에 자리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는 서해의 낙조와 풍성한 갯벌의 묘미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서해랑길 91코스를 품고 있어 이 무렵 훌쩍 바람 쐬러 나서기에 그만이다.

수도권의 대표적 섬여행지를 꼽자면 대부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로 연결돼 육지가 된 섬이다. 하지만 아직도 섬이 가진 낭만과 서정이 곳곳에 남아 있어 발품 대비 흡족한 바닷가 여정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여행지다.

특히 대부도 가는 길목은 섬과 섬을 잇는 색다른 드라이브를 즐길 수가 있다. 거기에 주변 섬 기행도 매력 있다. 돌이 검다는 탄도, 부처가 나왔다는 불도, 신선이 노닐었다는 선감도를 비롯해 섬 여섯 개가 어우러진 육도, 겨울철 굴과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인근 도리도로 이주했다가 이듬해 설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생활방식의 풍도 등은 독특한 섬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수도권의 낭만 여행지 대부도는 서해안의 낙조 명소로 통하는 곳이다. 사진은 서해랑길 91코스 중 최고의 해넘이 포인트로 꼽히는 할매할아배바위의 낙조 풍광

갯벌열차 타고 조개 캐고 그물낚시 체험도

바다낚시터~종현어촌체험마을

서해랑길 91코스는 대부북동 바다낚시터 입구에서 시작해 해솔길 캠핑장~구봉도 낙조전망대~북망산~방아머리 대부도 관광안내소까지 총 15km 길이의 매력 있는 해변길이 이어진다. 안산의 대부해솔길에 포함돼 있는 코스로 바다 전망과 어우러진 낙조가 일품이다.

개미허리아치교와 구봉도 낙조전망대, 할매바위와 할아배바위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인 북망산 전망대 등 빼어난 조망 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갯벌열차를 타고 조개캐기, 그물낚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종현어촌체험마을'



등 섬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서해의 가을 미각, 너른 갯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출발은 대부북동 바다낚시터 입구다. 5분여를 걸으니 람사르습지 상동 갯벌 전망대다. 이곳을 지나면 한 쪽으로 방풍림이 펼쳐진 도로를 걷게 되고 이후 해안가로 내려선다. 간조 때면 물 빠진 해안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데 다소 거친 자갈밭을 걷는 촉감도 괜찮다. 바위 더미들이 어우러진 해변은 길게 이어진다. 서울에서 잠깐 달려와 이런 천혜의 바닷가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게 고맙다는 생각마저 든다.

길은 숲으로 이어진다. 돈지섬 나지막한 산을 지난다. 초목은 알록달록 월동준비에 분주하다. 숲 중간 쉼터를 지나 돈지섬전망대 정자 옆에는 한전이 세운 송전탑과 건설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을 새겨 둔 비가 세워져 있다. 송전탑 건설을 위해 만든 임도는 이제 만인의 하산길, 산책로 구실을 하고 있다.

돈지섬 아래 구봉 펜션 단지를 지나면 종현어촌체험마을로 갯벌 체험의 명소다. 해안둑길은 바다와 나란히 걷는다. 물 건너 선재도와 영흥도 그리고 그 두 섬을 잇는 현수교 영흥대교가 눈앞에 펼쳐진다.

종현어촌체험마을을 지나 개미허리아치교 방향으로 해안길을 따라가다 보면 해변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다. 구봉이 선돌이다. 큰 바위는 할아배바위, 작은 바위는 할매바위로 불린다. 고기잡이를 떠난 할아배를 기다리던 할매가 기다리다 지쳐 비스듬한 바위가 되었고, 훗날 돌아온 할아배는 돌이 된 할매가 가여워 자신도 돌이 됐다는 전설이 따르는 곳이다. 대부도의 낙조 감상 적지 중 하나다. 인위적인 피조물이 아니기에 더 운치 있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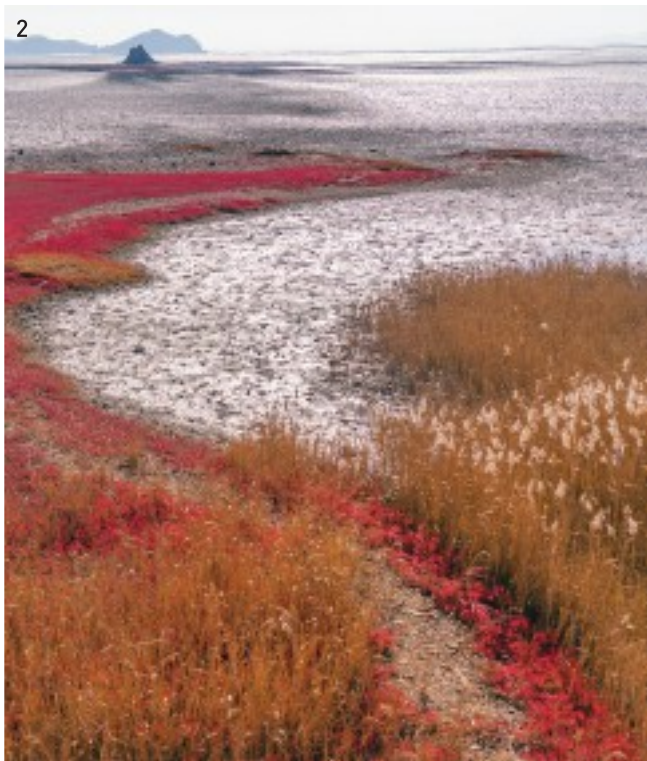
탁 트인 바다 바라보며 일상탈출 쾌감 만끽

개미허리아치교~대부도 관광안내소

이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개미허리아치교와 낙조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개미허리아치교는 섬과 섬을 잇는 아치가 마치 개미허리처럼 가늘어 보인다고 해서 따르는 이름이다. 물이 빠지면 해변을 통해서도 낙조 전망대로 갈 수 있다. 전망대는 구조물이 명물이다.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는 의미를 담은 철제 조형물은 대부도의 핫포토존이다. 때를 맞춰 석양을 감상하면 더 좋겠지만 탁 트인 바다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일상탈출의 쾌감에 젖어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멀리 송도국제신도시도 아스라이 펼쳐진다.

낙조전망대를 빠져 나와 개미허리아치교를 건너면 구봉도 봉우리 숲길이다. 아홉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이란 뜻을 지닌


1


2



1 낙조전망대 2 대부도는 람사르습지 명품 갯벌을 품고 있다. 갯벌에도 가을색이 내려앉았다. 3 대부도는 갯벌체험의 성지로도 통한다.

구봉도는 해발고도는 98m로 야트막하지만 제법 오르내리는 숲길이 이어져 걷기길의 묘미가 있는 곳이다.

구봉도 봉우리 숲길을 지나면 만남의 광장, 구봉솔숲해수욕장이다. 길은 야영의 명소로 통하는 대부도구봉솔밭야영장을 지나 전망 좋은 북망산을 향한다. 경사가 있는 편이라 제법 등산의 느낌을 받는 구간이다. 북망산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도 활용되는 곳이다. 이곳이 패러글라이딩 장으로 유명세를 타는 것은 서해 창공을 가르는 쾌감이 각별하기 때문이란다.

북망산을 내려서면 방아머리해변이다. 대부도 북쪽에 자리한 방아머리해변은 서해안 나들이 명소로 통하는데 가족단위 여정을 꾸리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방아머리'라는 지명은 일대 지형이 디딜방아의 방아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따르는 명칭이다. 시화방조제 지척으로 수심이 얕은데다 썰물 때가 되면 탄탄한 갯벌로 변해 해수욕과 조개잡이를 두루 즐길 수가 있다. 미리 물때 시간(www.badatime.com)을 확인하고 가면 좋다.

울창한 솔숲,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광 또한 서정적이다. 해변 옆 방아머리 먹거리타운에서는 서해안의 별미가 가득하다. 경기도가 2005년에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타운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해 활어회, 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 등 다양한 지역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서해랑길 91코스의 종착점은 해변에 자리한 방아머리 대부도 관광안내소다. 대부북동 바다낚시터 입구를 출발해 너댓 시간이면 흡족한 만추의 여정을 즐길 수 있다. ◉

● 여행 메모

가는 길

승용차(서울 기준)

: 제2경인고속도로~서해안로~대부황금로~대부북동 바다낚시터(1시간 30분소요)

대중교통(전철)

서울역(지하철 4호선)~오이도역~정류장 123번 버스~구봉도 입구~도보 2km~대부북동 바다낚시터(2시간 30분 소요)

뭘 먹을까?



대하구이



꽃게탕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타운 등 대부도 일원에서는 서해안의 가을 별미를 맛볼 수 있다.

- **대하구이** 요즘 서해안 최고의 별미는 싱싱한 대하다. 제철을 맞은 대하를 소금불판에 올려 발갛게 구우면 짧쪼름 쫄깃한 대하살이 일품이다.
- **꽃게** 가을 별미로는 서해의 꽃게를 빼놓을 수가 없다. 봄철은 알배기가 많이 잡혀 간장게장이 맛나고, 가을은 살이 토실하게 오른 수게가 탕과 찜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타운 등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
- 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는 대부도와 제부도의 대표적 미식 메뉴다. 푸짐한 게 가성비가 있다. 대부도에서는 음식을 마련할 때 다 같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커다란 솥에 바지락을 함께 넣어 칼국수를 끓였는데 이것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외지인들에게 소문이 났고, 오늘날 바지락칼국수거리까지 만들어졌다.
- 방아머리해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는 그랑꼬또 와이너리가 있다. 대부도 포도농장 40여 개와 조합을 만들어 와인을 빚는 곳이다. 개인 방문객은 토요일에 양조장 견학과 와인 테이스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관광경영학 박사)
신문사에서 20년 동안 관광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전 세계 50여 개국, 전국 각지의 문화관광자원 현장과 정책을 취재했다. 지금은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대한민국관광 명품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조선업 강국으로 가는 길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인력 확충, 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 조선소가 위치한 도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 조선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조선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10월 14일 열린 '산업·노동·지역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조선업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제조업 가운데 가장 고용효과가 크고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끌고 가야 할 산업"이라며 "시황주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정책을 수립해 각종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논의

양 선임연구원은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조선업의 위기는 호황 때 돈을 많이 벌기만 하고 이후에 다가올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영의 후진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이 특히 심했는데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매우 컸다. 국내 조선업은 절정기였던 2015년 20만~25만 명을 고용했으나 최근에는 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황은 2016년 침체기를 거쳐 2021년부터 회복되고 있다. 국내 조선회사들의 선박 수주도 크게 늘었다. 2021년 전년 대비 98.7% 증가한 1767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했고 2022년 8월까지 누적 수주가 1192만 CGT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필요 수주량인 연 1000만~1300만 CGT는 달성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 조선업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은 원청–하청의 이중적 구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사내하청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으로 못 넘어가고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도 못 넘어가는 분단된 구조다. 조선업은 특히 아웃소싱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임금구조도 더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업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업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한겨레

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9월 6일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력확충·기술개발 등 집중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인력 확충, 설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 선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자재 기업의 설계·연구개발(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탄소중립이라는 파도도 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해운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방치하면 2050년에 17%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운업의 탄소중립을 압박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운업의 2050년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항로를 들고 나왔다. 녹색항로는 특정 항로를 지정해 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선박은 해외 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경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조선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 뒤 초기에 경영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조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살려면 무엇보다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



●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완전체로 돌아온 부산영화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약진

10월 5일 개막해 2주일에 걸쳐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풍성한 화제를 남기고 폐막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반쪽짜리 영화제로 만족해야 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완전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화팬들을 즐겁게 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약진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영화제에서는 대형 영화배급사들이 중심이 돼 잔치를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토종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잔치 분위기를 주도했다. 업체마다 갤러리 등 부스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한 성대한 저녁 행사를 갖는 등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엄밀히 따지면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운 시리즈물들이 영화제 주요 화제작으로 거론되는 분위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OTT 플랫폼들이 작품 공개를 영화제 이후로 미루면서까지 부산영화제의 대형 스크린에서 선보인 영화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번 영화제에서 어떤 작품들이 주목받았을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작품 선봬

각 플랫폼별로 야심 차게 선보였던 작품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OTT 플랫폼의 원조 강자로 불리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마이네임〉과 〈지옥〉에 이어 훨씬 더 많은 작품을 공개했다. 먼저 시리즈물인 〈글리치〉와 〈썸바디〉의 일부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인간수업〉의 진한새 작가의 신작 〈글리치〉는 〈연애의 온도〉, 〈특종: 량첸살인기〉를 연출한 장르물의 귀재 노덕 감독이 연출을 맡고 전여빈, 나나가 연기 호흡을 맞췄다. 모험물이자 공상과학(SF)물이면서 미스터리와 코미디가 뒤섞인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다. 흥미로운 서사 전개, 시각적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는 반응이다.

〈썸바디〉는 〈해피엔드〉, 〈은교〉 등으로 유명한 정지우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한 시리즈물. 누리소통망(SNS) 애플리케이션(앱)을 발명해 낸 김섬(강해림).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관 기은(김수연). 무속인인 목원(김용지). 미지의 남자 윤오(김영광)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네 개의 축이다. 매혹적이면서도 밀도 있는 스릴러물로 신인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8부작 중 3부를 상영했다. 이와 함께 〈20세기 소녀〉, 〈화이트 노이즈〉 등 넷플릭스 영화가 다양한 섹션에서 소개됐다.

디즈니플러스의 하반기 기대작 〈커넥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신인류인



1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2



3

1·2·3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선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들.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OTT 업체들의 약진이었다. | 오광수

동수(정해인)는 장기밀매 조직에 납치당해 한쪽 눈을 빼앗긴 뒤 이 눈을 이식한 연쇄살인마를 뒤쫓는다. 개성파 감독 미이케 다카시가 역동적인 연출 솜씨를 발휘한 시리즈라는 평가다. 고경표, 김혜준 등이 호흡을 맞췄다.

토종 OTT 업체인 티빙은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와 〈몸값〉을 BIFF의 온 스크린 섹션에서 나란히 선보였다. 이준익 감독의 SF물 〈욘더〉는 티빙이 파라마운트와 공동제작한 신하균·한지민 주연의 시리즈다.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인 욘더에 초대받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전우성 감독의 〈몸값〉은 진선규·전종서·장률 주연의 시리즈로 호평을 받았던 동명의 단편영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원작의 파격적인 스토리에 새로운 세계관을 결합해 더욱 확장된 스토리와 스케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서로 다른 이유로 몸값 흥정이 벌어지던 건물에 대지진이 덮치면서 펼쳐지는 스릴러물. 원테이크로 촬영된 다이내믹한 화면이 압권이었다는 평이다.

올 겨울 OTT 경쟁, 누가 사랑받을까?

웨이브가 선보였던 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약한영웅 Class 1〉(유수민 감독)은 상위 1%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친구 안수호(최현욱), 오범석(홍경)과 함께 수 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액션 성장 드라마다. 넷플릭스 〈D.P.〉의 한준희 감독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 가수 겸 배우인 박지훈이 만만치 않은 연기력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왓차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아내 다정(김서형)을 위해 난생처음 요리를 하며 부엌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창욱(한석규)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를 공개했다. 이호재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한석규, 김서형의 담백한 연기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12부작 중 4부를 선보였다.

물론 프로그래머나 일부 극소수의 관객들이 보인 반응으로 이들 OTT 시리즈물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각 플랫폼이 뛰어난 연출력을 인정받은 영화감독을 앞세워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이번 영화제에서 이들 작품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면서 영화와 드라마의 중간 어디쯤 제3의 장르가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올 겨울 펼쳐질 OTT 경쟁에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



● **오광수** 대중문화평론가(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문화 분야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에세이집 〈낭만광대 전성시대〉 등이 있다. 현재는 문화 현장에서 일하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주알을 캔다
'미주알'은 무엇일까?

몸 관련된 우리말

초미, 구설, 비견, 부아, 애, 미주알, 오금, 슬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이 단어들은 신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 '부아가 나다' '애가 타다' 등처럼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이처럼 우리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도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얼굴(초미·구설)

현재 가장 뜨거운 내용 또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관심거리를 '초미의 관심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초미(焦眉)'는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눈썹이 불에 탈 정도로 아주 다급한 일이나 중요한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등회원(五燈會元)〉이라는 불교 서적에 그 유래가 나오는데요. 불혜선사라는 고승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미, 즉 눈썹에 불이 붙는 것이라고 답한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구설(口舌)'은 입과 혀를 말하는데요.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의미하므로 '남의 구설에 오르다'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구설은 '구설수에 오르다' 등의 표현으로 더 익숙한데요. 구설수의 '수'는 운수를 말하기 때문에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라는 뜻입니다.

가슴(비견·부아·애·미주알)

'비견(比肩)'은 실력이 비슷할 때 쓰는 표현으로 '견'은 어깨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견하다'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로 실력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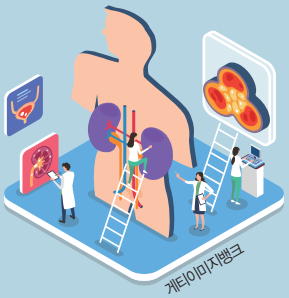
분노하거나 분한 마음이 생길 때 '부아가 나다' '부아가 치민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부아'는 허파를 뜻하는 말로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화가 날 때 씩씩거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부아에서 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나타낼 때 '애가 탄다'고 하는데요. '애'는 원래 창자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가 탄다'는 창자가 탄다는 의미로 속이 매우 타들어가 안타깝고 초조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애'는 지금은 초조한 마음속이나 몹시 수고로움을 이르는 말로 사용합니다.

'미주알'은 항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미주알을 캔다'는 것은 창자 끝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람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살펴본다는 건데요. 그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몸과 관련된 표현



초미의 관심사
초미: 눈썹에 불이 붙다

구설에 오르다
구설: 입과 혀

비견하다
비견: 어깨

부아가 나다
부아: 허파

애가 타다
애: 창자의 옛말

미주알을 캔다
미주알: 창자의 끝부분

슬하의 자녀
슬하: 무릎 아래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 입안

복장이 터지다
복장: 가슴의 한복판

오금이 저리다
오금: 무릎의 뒤쪽 구부러지는 부분

'초미의 관심사' '부아가 나다' '애가 타다' 등 우리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많은데도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자세히 따지고 들 때 '미주알고주알 캔다'고 표현합니다.

다리(오금·슬하)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오금이 저린다'고 표현하죠. '오금'은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뒷무릎)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오금이 저린다'고 하면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한다는 뜻으로 저지른 잘못이 들통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 아래를 가리키는 '슬하(膝下)'도 있습니다. 애가 둘이라는 표현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슬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무릎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로 주로 어버이의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이밖에 신체를 나타내는 말로는 ▲입안을 나타내는 '어안'(어안이 벙벙하다 :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가슴의 한복판을 말하는 '복장'(복장이 터지다 : 몹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다) ▲배와 가슴을 가리키는 '심복'(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자주 쓰는 표현이 어떤 낱말로 이뤄졌는지 뜻을 안다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걷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곧 본격적인 단풍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단풍 명소의 절경도 좋겠지만 동네 한 바퀴 어떤가요? 매일 지나치는 동네 길이지만 여유를 갖고 차분히 걷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가을 풍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백미현 기자

정답없는 미술, 한국적인 매력을 찾아서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열매처럼 벌겋게 가을이 익어간다. 계절을 체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코끝으로 전해지는 알싸한 새벽 공기에서 가을 냄새를 맡고 누군가는 대학입학 시험 소식에 겨울을 체감한다. 요즘 각 대학에선 수시입학 전형이 한창이다. 특히 미술대학에선 실기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있다. 석고 데생이다. 아폴로, 헤르메스, 라오콘, 비너스, 아그리파, 줄리앙, 시저, 브루투스…. 그리스·로마시대 만들어진 대리석 조각상이다. 미대 입시에 사용되는 석고상은 이 대리석 조각 모사품이다. 일종의 '가짜 조각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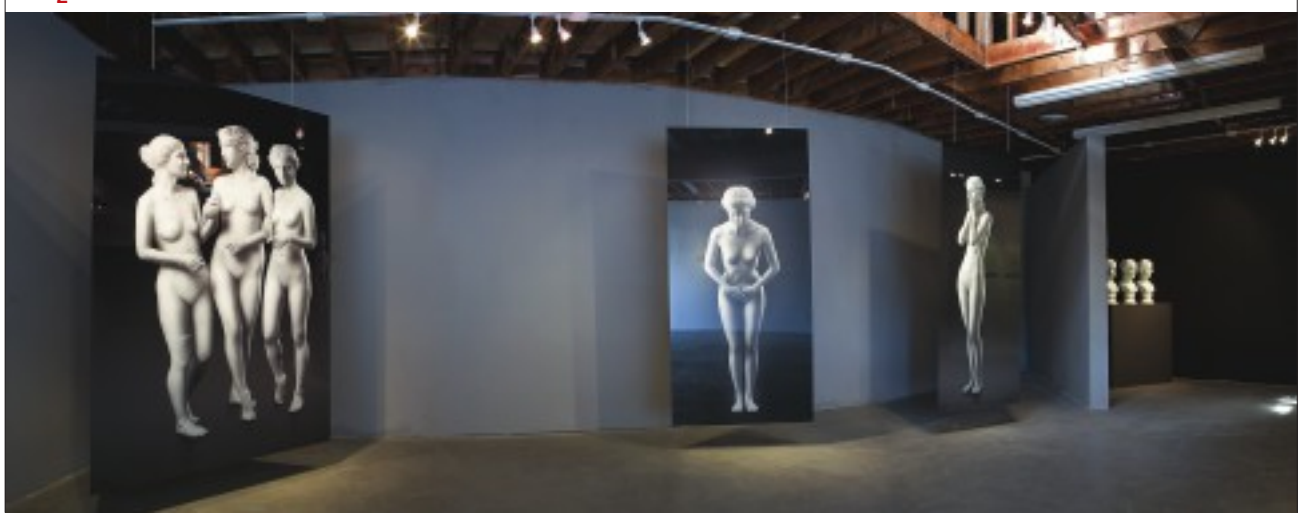
미대 지망생들은 몇 시간 내에 이 석고상을 똑같이 그려내는 기법을 배운다. 가짜를 보고 진짜처럼 그려내는 기술을 미술학원에서 체득한다. 이때 사용하는 재료는 오직 연필과 지우개. 눈처럼 하얀 석고상을 검은색 연필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더 묘사(눈속임)에 능숙한가를 겨루는 셈이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기계처럼 익힌 기술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획일적인 미술대학 입시제도의 그늘

아무튼 석고 데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미대 입학 제도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만들어낸 작가가 있다. 재미교포 1.5세 데비 한이다. 2004년 데비 한이 발표한 '지우개 드로잉(Eraser Drawing)' 시리즈는 당시 한국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가 그린 석고 데생은 어딘지 다르게 보인다. 이유는 연필이나 목탄으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지우개 찌꺼기를 붙여서 그려졌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과정에서 생산(?)된 노력의 흔적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입시미술 제도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작품에는 연필로 그린 것 못지않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깃들었다. 그래서 수공예적인 느낌

2



3 4 5





1 데비 한, '지우개 드로잉-아리아스', 종이 위에 지우개 가루, 풀, 79×56cm, 2004 2 2009년 LA컨템포러리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광경 3 데비 한, 'The Battle of Conception', 도자기에 청자유액, 35×33×16cm, 2010(부분) 4 데비 한, '두 여신 III(Two Graces III)', 디지털 프린트, 180×160cm, 2008 5 데비 한, '앉아있는 삼미신(Seated Three Graces)', 디지털 프린트, 160×235cm, 2009

이 물씬 풍긴다.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난 데비 한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돼 2002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미대를 지망하는 중고생들이 똑같이 기계처럼 석고 데생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정말 신기했어요. 뉴욕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미술 트렌드가 전부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 미술계가 매우 역동적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겉모습만 그럴 뿐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데비 한은 당시 한국 미술계를 이렇게 진단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획일적인 미술대학 입시제도 때문이란 걸 알게 됐다고 한다.

"한국은 미술에서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이건 잘 그렸고 저건 못 그렸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따져요. 예술은 정답이 없는 창작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려는 것 같아요."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한 장면

이처럼 한국 미술계에 적응하면서 맨 처음 든 의문은 미술대학 입학을 위한 획일적인 석고 데생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좀 더 심각하고 다양한 주제로 확장됐다. 비뚤어진 한국 여성의 미의식, 즉 서구적인 외모를 선망하면서 행해지는 성형수술 같은 사회현상으로까지 관심이 확대됐다. 청자나 백자로 만든 비너스 도자기 작품, 서양 고대 조각상과 한국인 신체를 합성한 사진 작품 시리즈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뭔가를 고친다는 건 잘못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여자 얼굴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는, 그것도 서양인 기준에 맞추려는 한국 여성의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여성 특유의 몸짓에 주목했다. 찜질방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수다를 떠는 중년여성, 친한 친구들끼리 스스럼없이 팔짱 끼고 다니는 여학생,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는 백화점 여점원 등이 그 예다.

작가는 이런 모습에서 한국 여성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했다. 그들 특유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일반인을 섭외해서 촬영했다. 그리고 서양 고대 조각상의 여신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했다. 피부도 대리석이나 석고상처럼 매끄럽게 만들었다. 이 작업 역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페미니즘 미술 분야 권위자이자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평론가 김홍희는 이렇게 평가한다. "데비 한의 작품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성형산업의 성행, 문화적 상징 속에 드러나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 왜곡된 자본주의 문화 현상과 젠더 위계를 진단하는 페미니스트 비너스인 것"이라고. ◉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리뷰



675호 4분 53초간의 씹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밥을 먹는데 급한 마음에 제대로 씹지 않고 꿀떡꿀떡 삼키는 저를 발견했어요. 5~10분 더 투자해 오래 씹으면 식사가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얼 먹는지 마주하게 되고 밥상에 대한 감사도 깊어질 것 같네요. 저도 오늘부터 씹기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김수영 서울 구로구 고척로

기사를 읽으니 벌써 김장할 시기가 됐음을 느낀다. 동시에 김장 김치라는 익히 알고 있는 맛이 입안에 군침을 돌게 한다. 내게 김치는 배추김치다. 새콤하게 익은 총각김치, 알싸한 갓김치도 일품이지만 적당히 절인 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잘 버무려진 양념이 어우러지면 갓 담거나 잘 익거나 시큼하게 푹 익어도 입맛에 딱 맞는다. 올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금치'가 된다지만 그래도 배추 여남은 포기로 김치 담그자고 졸라야겠다.

최희상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진 공감



석양이 밀물에 빠졌으니
장화 벗어두고
잠시 쉬어가는 마음아

김동광 인천 연수구 송도동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gonggam.korea.kr
content.v.kakao.com/3094
blog.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 기프티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11.11.11. UNMCK

2022. 11. 11. 11:00.(금) 유엔기념공원

KOREA Sale FESTA

www.koreasalefesta.kr

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2022. 11. 1 ~ 11. 15

